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2.07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세계적인 학술전문출판사

Springer-Verlag 논문 게재 공동저자

Springer

갑상설관낭종 치료를 위한 에탄올 절제술 : 2년 이상의 추적관찰 결과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갑상선센터에서 공동저자 참여한 갑상설관낭종 치료를 위한 에탄올 절제술에 대한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전문출판사 스프링어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2022에 게재되었습니다.

77명의 환자가 에탄올 절제술을 받았고 68명의 환자에서 후속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과를 평가한 결과, 첫 번째 EA의 즉각적인 성공률은 81%였으며 3개월 이내에 평균 부피변화비율은 73%±31%였습니다. 42명의 환자가 2년 이상 추적 관찰되었고, 중앙값 69개월의 추적 기간 동안 장기 성공률은 83%였으며 최종 추적 시 평균 VRR(부피변화비율)은 81%±35%였습니다. 절제된 갑상설관낭종에서 악성 종양이 발생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European Radiology (2022) 32:3525–3531
https://doi.org/10.1007/s00330-021-08402-x

HEAD AND NECK

Check for updates

Ethanol ablation for the treatment of thyroglossal duct cysts: follow-up results for longer than 2 years

Sang Ik Park[1] · Jung Hwan Baek[1] · Sae Rom Chung[1] · Young Jun Choi[1] · Jeong Hyun Lee[1] · Tae Yong Kim[2] · Yu-Mi Lee[3] · Seon Mi Baek[4]

Received: 19 May 2021 / Revised: 28 September 2021 / Accepted: 11 October 2021 / Published online: 7 January 2022
© The Author(s), under exclusive licence to European Society of Radiology 2021

Abstract

Objectives To evaluate the long-term efficacy and safety of ethanol ablation (EA) for the treatment of thyroglossal duct cysts (TGDCs).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included 81 consecutive patients diagnosed with and treated for symptomatic TGDCs at two institutions between Jan 2008 and Oct 2018. Preprocedural evaluation included US assessment with calculation of the TGDC volume. EA was performed under US guidance using 99% ethanol. Post-treatment follow-up was scheduled within 3 months, 6 months, and then annually. Immediate success was defined as a volume reduction ratio (VRR; ratio of the volume difference after EA to the initial TGDC volume) > 50% within 3 months. Long-term success was defined as VRR > 50% or resolution or improvement of cosmetic problems and symptoms without recurrence at last follow-up.

Results Seventy-seven patients underwent EA, and outcomes were assessed in 68 patients with available follow-up data. The immediate success rate of the first EA was 81% (55/68), with a mean VRR within 3 months of 73% ± 31%. One patient (1.5%, 1/68) developed wound inflammation after the first EA. Forty-two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longer than 2 years. For the median follow-up of 69 months (range, 24–131 months), the long-term success rate was 83% (35/42), with a mean VRR at last follow-up of 81% ± 35%. No patients developed malignancy from the ablated TGDCs.

결론적으로, 갑상설관낭종 치료를 위한 에탄올 절제술은 낮은 합병증률로 허용 가능한 즉각적 및 장기적 효능을 달성했으며 갑상설관낭종 관리를 위한 1차 치료로고려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방법입니다.

대한영상의학회 춘계종합심포지엄

백선미 병원장님이 제9차 대한영상의학과 춘계종합심포지엄에서

'갑상선 결절의 중재적 진단, 치료 및 합병증'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심화 핸즈온 교육 (07.17)

백선미 병원장님이 제6차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심화 핸즈온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심화핸즈온은 영상의학과 전공의,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는 시술에 대한 집중 교육입니다.

에탄올절제술의 기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시술 술기에 대해서 직접 시연하면서 시술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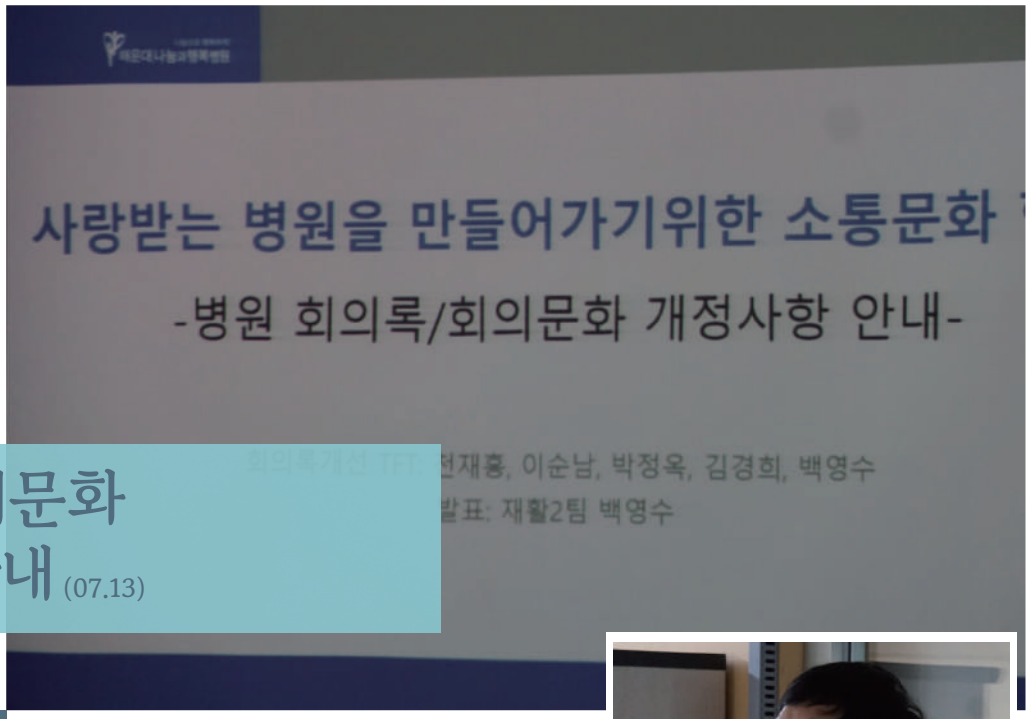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정착하고,

공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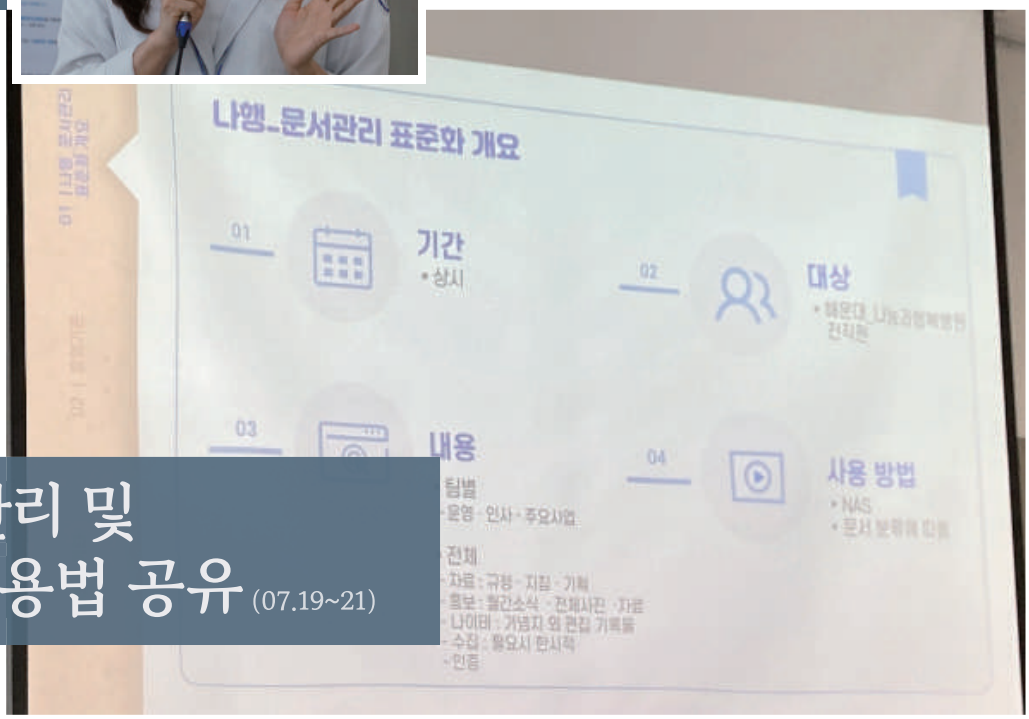
사랑받는 병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병원 회의록 및 회의문화 개정사항 안내'에 관해 재활치료2팀 백영수 팀장님이 특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의록/회의문화 개정사항 안내 (07.13)



나행 연간일정 및 NAS 문서관리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회사업팀 박선미 팀장님이 특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NAS 문서관리 및 연간일정 사용법 공유 (07.19~21)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지금 우리들에게는 준비된 퇴원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강의 & 프로그램

사회복지제도 강의 (사회사업팀 박선미 팀장)
'알기 쉬운 지역사회자원' (07.06)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강의 (최성호 강사)
'장애를 넘어 일상의 삶으로' (07.23)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국립재활원 운전연수' (07.25~28)

스킬 Up, 자신감 Up
'휠체어스쿨' (07.12, 07.26)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https://www.youtube.com/watch?v=omhU3iHTpcM&t=1s
(PC에서SMS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 : 재활코치팀

출연 : 재활코치팀 서인석 선생님

촬영 : 박현기 선생님

제작 : 박현기 선생님

재활코치팀과 함께하는 휠체어스쿨

step.2 - 경사, 횡경사 이동

(횡)경사로 오르기의 필요성

- 실외에서 독립적으로 휠체어를 타기 위한 기본기술
- 여러 가지 문제해결 능력 향상
- 휠체어 앞바퀴 들림으로 인한 부상예방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퇴원한 참여자분
사회사업팀에 방문 (07.20)

본원에 입원해서 재활을 받았던 참여자(최○○)군이 퇴원 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사업팀에 놀러오셨습니다.

입원기간동안 미니도서관을 이용해 책도 많이 빌렸고, 사회사업팀장님과 팔씨름 대결도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았는데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깜짝 방문하여 반가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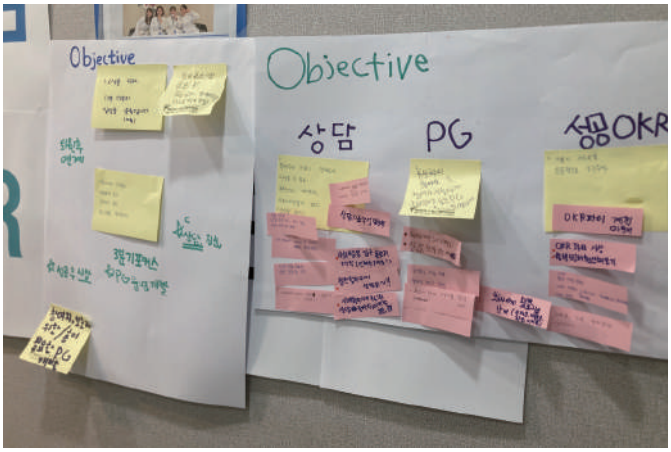
진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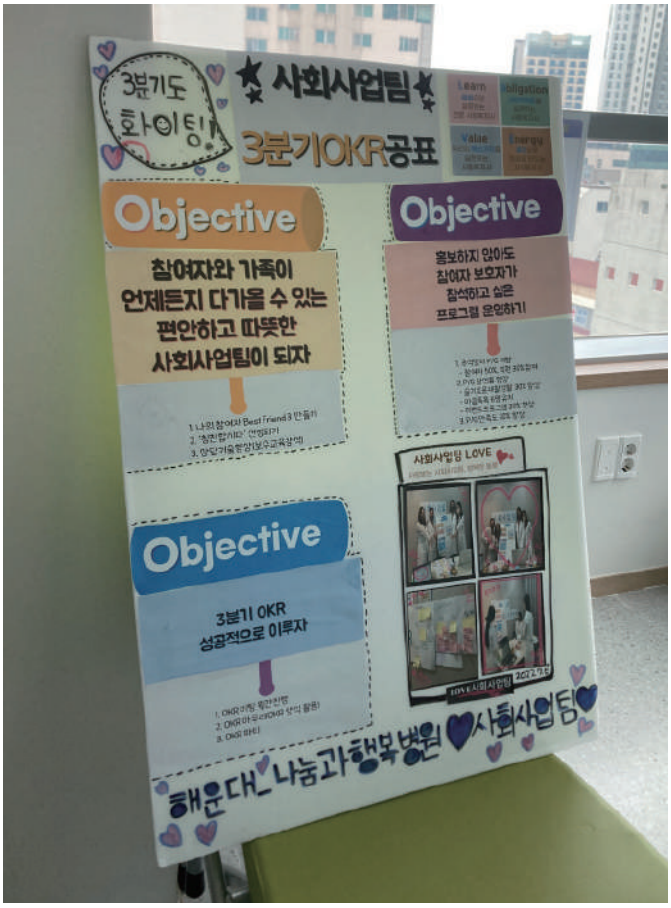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함께 나누고 같은 생각을 하는.
워크샵 & 분기회의





2022년 3분기 OKR 수립을 위한 사회사업팀 워크샵 (07.05)

사회사업팀 2분기 분기회의 (07.07)

함께 나누고 같은 생각을 하는.
워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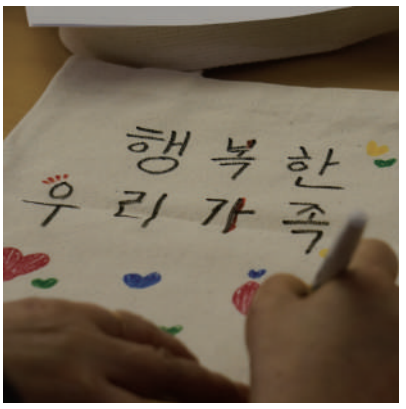
2022 팀 목표 발견을 위한
통합의료센터 워크샵 (07.16)

2022 함께 만들어 갈 10년
경영지원센터 워크샵 (07.23)

사회사업팀에서 한 달에 한번
진행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텃밭 가꾸기, 6월
모기퇴치제 만들기에 이어
7월에는 에코 가방 꾸미기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에코 가방 만들기 (07.21)



함께하니,

더즐겁다.

참여자 및 보호자분들을
위해'슬기로운 재활생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주에는
예술문화복지사 부산지회
김미애 강사님을 모시고 '웃음'
레크레이션, '만나서
반갑습니다.' 를 진행했습니다.

슬기로운 재활생활
웃음 레크레이션 (0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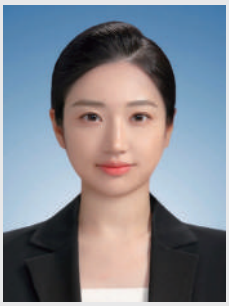
우리는 가족입니다.
7월의 신규입사자

가정의학과 배은숙 진료부장

간호팀(7W) 김효진 간호사

유·갑센터 이수연 간호조무사

유·갑센터 신은경 간호조무사


간호팀(8W) 윤지현 간호사

내시경센터 신지은 파트장

간호팀(5W) 최나영 간호사

간호팀(7W) 유태경 간호사

간호팀(7W) 김재석 간호사

간호팀(5W) 김해경 간호조무사

간호팀(8W) 안명은 간호사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휠체어 럭비 이벤트 게임 (07.08)

SCI센터 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참여해 휠체어럭비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이벤트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찾아가는 서비스
이미용프로그램 (07.19 / 07.22)

매월 특정 기간에 사전예약 신청으로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미용프로그램은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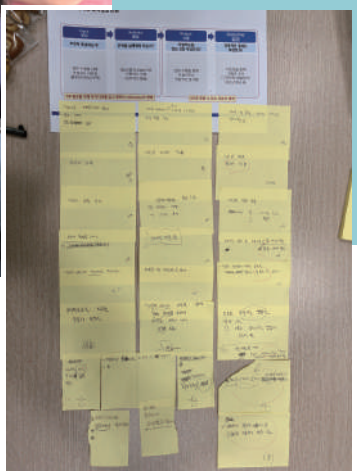
참여자분들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위생과 청결은 물론 기분전환을 느끼게 됩니다.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가인지스터디는 리더들, 그러니까..원장님께서 팀장들에게 추천된 몇몇 가인지 강의를

'함께 의지하며 머리 맞대어 같이 들어보자' 라는 마음이 하나둘 모이고 모여 (사사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지 스터디 모임 '가스' (매주 화요일 조금 늦은 오후)

듣고는 싶고 듣기는 들어야 하는데 업무중에는 잘 들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가서 들어야지 하는 마음도 이런저런이유로 실천이 어렵고, 시간은 흘러가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쌓여만 갔던 그 마음의 무게...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이 모여 '가스인'(가인지스터디인)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17일부터 시작! 7월까지 6회 스터디 달성!!

매주 화요일 저녁 5시 반부터 시작되는 스터디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8시를 훌쩍 넘어서서 마치고 있습니다. 어느순간 시간흐름의 눈치를 보며 내용과 피드백을 조절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아쉬운? 아이러니한 시간들이 되었구요.

주제 강의는 우리 병원의 핫한 화두인 '도전과 성장, OKR'입니다. OKR 의미, 제목작성, 마무리, 파티, CFR 미팅까지 진행되었구요

실제 가스팀의 OKR도 만들어보고, CFR 미팅적용하여 월별 점검도 하고, 3개월이 되는 8월에는 마무리를 통해 지식발견, 시상, 그리고 다음 OKR 계획까지 OKR파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누구일까요, 추천음악 감상, 생활나누기 등), 강의듣기, 청취 후 Key word 찾기로 리마인드 및 상호 피드백, 과제 피드백 등등.. 서로를 알아가기도 하고, 서로의 다름과 깊이로 생각의 폭이 넓혀지고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에서 한계단 올라가기, 또 한계단 올라가기..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새 몇 번째 계단에서 함께 도전하고 조금씩이나마 함께 성장된 우리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서 있게 되겠지요.

일상재활센터 7월 그룹프로그램
모기퇴치제 & 시나몬 가랜드 만들기 (07.20)

사회사업팀, 재활1팀, 재활2팀이 함께 모였습니다. 매월 3번째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함께 일상재활센터(낮병동)에서 참여자분들을 위해 조금은 특별한 이벤트로 그룹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엔 모기퇴치제와 시나몬 가랜드 만들기 그룹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여명의 참여자분들을 모시고 6층 일상재활센터(낮병동)에서 약 30~40분가량에 걸쳐 함께 했습니다.

모두들 일상재활센터(낮병동)에서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 재활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낸답니다. 그래서 그룹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서로를 알아가며 활동하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참여자분들의 이름과 관심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은 특이한 이름에 다 같이 한바탕 웃기도 하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비슷한 곳에서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모기퇴치제와 시나몬 가랜드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원하고 계신 참여자분들을 위해 사회사업팀에서 매년 진행하는 이벤트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호응이 좋아서 7월을 맞아 일상재활센터(낮병동) 프로그램에도 진행한 것이죠.

그룹프로그램은 수고한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이며, 직원(치료팀, 사회사업팀)과 함께하는 즐거운 체험 시간, 나아가 서먹했던 다른 참여자와 가까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달의 우수 자립왕 & 출석왕 수상자 발표 (07.08)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홍보팀장의 '브런치' 세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화분에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경험이라는 가능성의 씨앗만 얻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아마 이 건물 전체에서 가장 햇볕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 아닌 약간 사다리꼴처럼 윗변과 아랫변의 차이가 있고, 거기서 만나는 대각선의 길이가 전부 창가로 되어 있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아랫변도 창가다. 물론 여긴 책장으로 가렸다. 아무튼 한 겨울에도 11시~14시 정도는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다. 겨울엔 하루에 사계절을 만나고 있다. 새벽엔 겨울, 오전엔 봄, 정오엔 여름, 퇴근 무렵엔 다시 겨울이다. 표현뿐이 아니라 실제 아침 출근할 땐 히터를 켜고, 오전엔 히터를 끈 채 가디건을 벗는다. 정오엔 에어컨을 켜고, 오후엔 에어컨을 끈다. 가디건을 다시 입고 히터를 켜는 반복적인 행동을 겨울 내내 하고 있다. 기온변화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근무환경이 꽤나 좋지 않다. 그래도 놓칠 수 없는 건 탁 트인 창문과 채광 때문이 아닐까. 한 여름에 수고는 말이 필요 없겠지만.

반대로 우리 집은 아파트 1층이다. 햇볕 한줌이 그리운 곳이다. 한 여름에도 베란다와 거실 일부만 햇볕이 들어온다. 겨울에는 말이 필요없다. 물론 1층을 선택한 이유는 층간소음으로부터 해방이 필요해서다. 앞선 아파트에서 아이 둘 놓고 층간소음으로 아래층과 좋지 않았다. 층간소음의 스트레스는 곧 아이에게로 전달되니, 결국 아이를 위해 햇볕을 내어주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선택했다. 현명한 선택이었다.

겨울이 깊어가던 12월에 아이들과 함께 다이소에서 작은 씨앗과 화분을 1개 샀다. 2,000원치고는 디자인도 예쁘고 가성비도 좋았다. 아이들과 함께 흙을 담고 물을 주고 씨앗을 심었다. 방울토마토 씨앗이었다. 햇볕이 안 들어서 걱정이었지만, 1주일 후 집에서 새싹이 돋아났다. 너무 신기하고 기뻤다. 하지만 식물에게 필요한 건 햇볕이라는 설명서와 함께 이 녀석을 사무실로 갖고 왔다. 햇볕 들기로는 직장 최강의 장소인 곳이니까. 그리고 내친김에 다이소에 가서 색상이 다른 화분과 씨앗을 3개 더 샀다. 봉선화, 바질, 강낭콩을 심었다. 창가에 두고 정성스레 물도 주고 관심도 줬다. 일주일 만에 강낭콩에서도 싹이 났고, 나는 신이 났다. 가끔 일찍 출근하면 음악도 선물해줬다. 그런데 사무실로 가지고 온 것이 곧 비극이 되었다.

한겨울에는 온도차가 극심하다. 아무리 햇볕이 잘 든다 하더라도 해가 지고나면 바깥의 찬 기운이 창가를 타고 들어온다. 햇볕만 믿은 내 판단이 어리석었던 것이다. 결국 창가에 있던 화분 중 방울토마토와 강낭콩은 싹이 난 상태에서 시들어가고 있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죽어가고 있었다. 봉선화와 바질은 싹조차 틔우질 못했다. 안타까웠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할 싹들의 잎사귀는 자꾸만 땅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내 어깨의 힘도 같이 내려가고 있었다. 잠시라도 싹을 틔운 방울토마토와 강낭콩은 자연으로 돌려보내줘야 할 것 같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다. 건물 9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하늘공원이라 부르는 그곳에 화단이 있었다. 조심스레 그곳에 이 아이들을 뿌려주었다. 마음속으로 빌었다. '이대로 있다가 봄이 오면 싹을 다시 틔우렴.'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대상에게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감은 애초부터 그걸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_이석원《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달 출판사)

애완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 또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애초부터 그 대상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에 무척 공감을 한다. 그래서 식물조차도 생명이 있기에 책임을 다 할 수 없다면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지냈다. 이 말을 떠올리니 죄책감이 들었다. 무책임도 느꼈다. 싹 조차 틔우지 못한 바질과 봉선화를 심은 화분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미안한 마음을 추스르고 앞서 비워냈던 두 화분에 채울 흙과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봉선화 씨앗 한 봉지를 샀다. 빈 화분에 흙을 채우고 물을 적셨다. 그리고 봉선화 씨앗을 골고루 심었다. 다른 화분에도 같이 심었다. 그렇게 2월 중순에서 3월초까지 3주가량을 지켜봤다. 무책임한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씨앗들은 고개를 내밀지 않았다. 그렇게 또 잊혀 갈 때쯤 아내가 인터넷으로 아이들과 봄에 심으려고 또 화분 여러 개를 구매했다. 나는 그 중 2개를 병원으로 들고 왔다. 이번엔 나팔꽃과 해바라기다. 저렴해 보이는 투명플라스틱에 흙을 담고 씨앗을 심었다. 이번에는 물을 과할정도로 넘치게 부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봉선화 화분에도 물을 듬뿍 주었다.

> 봄이 창문 가득히 찾아왔다.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 출근하니 앞서 3주전 심었던 봉선화 씨앗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대단하다. 그 단단한 흙을 뚫고 나왔다. 여기저기 밀려진 흙들이 위로 솟구쳤다. 신기하고 또 아름다웠다. 혼자 흙을 뚫고 나오는 씨앗도 신기하고, 길을 내어주는 흙 또한 경이로웠다.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 녀석들이 잘 자라서 꽃망울을 터트리는 날까지 지켜야할 의무감이 생겼다. 이 작은 화분에 봉선화 씨앗을 마구 뿌렸으니, 언젠간 분갈이로 넓은 화분까지 머릿속에 생각중이다.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둘 수 있다.
미래에 수확을 기대한다면
매일 기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실패는 항상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실패에서 나온 기회의 씨앗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_리처드 파크 코독《밀리언 달러 티켓》(마젤란)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5년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 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변화가 생긴다. 그 성장속도는 한 두 달 만에 30cm가량 쑥쑥 자란다는 것이다. 땅속에서 5년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줄곧 희망을 씨앗에 비교하고, 행복을 열매에 비교한다. 도전과 결과도 마찬가지다. 꿈도 그렇다.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행동의 씨앗을 뿌리고, 그 결과를 수확하기 마련이다. 성큼 다가온 봄 역시 이 씨앗이다. 저마다 올 봄에는 어떠한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할까? 거창한 열매를 수확하려 하기 보다는 경험이라는 가능성의 씨앗만 얻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창가 화분에 뿌려둔 씨앗과 함께
나는 이 봄에 '글쓰기'라는 씨앗을 뿌려본다.
어떤 열매가 맺힐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2년 07월 31일
편집인 홍보기획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